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행원리 해녀 인터뷰

해녀: 김영자, 강등자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000 (Q2로 기록)

인터뷰 대상자 : 김영자(1937년생, 만 81세, A로 기록), 강등자(1937년생, 만 81세, B로 기록)

Q : 그 바당의 몹밭이라던지 툷밭디 청소 험니까? 그 지층이

A : 으, 지층 지층, 험니까

Q : 거 언제쯤 험니까?

B : 정월

A : 저, 정월, 2월에

B : 정월에도 허곡

A : 2월에 허주. 2월에

B : 2월이엔 허민 안되지~

A : 무사

B : 정월이라사, 이제 이삼월나민 툷 허잖아. 게민

A : 게난 정월에 허주게

B : 묵은해도 허곡, 2월에 안허여,

A : 3월나민 툷허난, 묵은해 안허여, 툷광 지층이 커사 이제 구별허멍

B : 묵은해 해사 그 툷도 나곡 그 시리떼 험디 툷이 나잖아 경허민

A : 툷 나렌 허는 것이 아니고 난 거 구별허면 무신거 험주게. 에~~

B : 툷 나렌 험거주 시리떼 허는 거

A : 무신 툷 나게 허느니게, 툷 난디

B : (목소리가 커짐) 시리떼 허는 거 이

A : 툷 나기네 맛맛허게 툷이영 맛맛허게 누우민 그걸 구별헌에

B : 구별 허는 건 허는거,

A : 지층 해냄주

B : 캐내는 거고

A : 우린 남바르 배 타민 육사출이 허영, 그 배임젠 만일에 만원이면 육천원, 우린 스천원. 경헌 이제 죽 이제 전라도 섬섬이 덩기멍 이제 험 조금 보아기네, 왕 이제 거시기 자갈초 한디 덩깁니다게. 그추룩 행 험 조금 왕 덩기민 어떤 땐 그냥 배 파래기 육지 강 전라도 강 누워. 돌은 흰흰 허민 타렌 해 봤다가 무신거 해봤다가 허멍 허연. 험 물찌 행 빙 허 게 가멍 가멍 이제 다 이제 섬에 요디 강 들이치곡, 요디 강 들이치곡 허영 허민 무래 해 영 날 때 되민 이제 전주가 다 발동기로 다 둘앙 덩기멍 다 쉬어. 경 허영 전북 광주리에 허영 다 커근에 허영 이제 거기서 살당 험 조금 불민 이제 부산으로 자갈 초 왕 그냥 덩 경 뭐 허영 해나수다.

Q : 조록 그거 놔 뒤 ���디강?

A : 응, 그냥 물에 허영 광주리에 허영 물에서 살립니까. 물에서 살려. 배 파래기에 다 해영

Q : 전북 말고 다른 것들은?

A : 다른것들은 그냥 고동도 잡아봤다가 무신거 해봤다가 허주마는 다른 건 우린 안해봐수다.

전복만 주로 허게 그냥 가랑챙이 산챙이 그냥 영 가랑챙이 되민 물 밑에도 가랑챙이 들
민 강 보민 그냥 옛날엔 그냥 전복이영 비다닥허게 붙이민 혼 고망에 열개도 부뜨곡, 아
홉개도 부뜨곡 막 그냥 비다닥허게 부뜨민 망태 골르는 것이 하.

B : 그날 밤에 잠 못 자

A : 우리 어멍 덩긴 땀 산디째 뿌렁 그거 허랜 허라. 나룩집에

B : 나룩볼에, 나룩볼에 귀그네 허민 잠 못자. 그거 구워내젠 허민. 카카부덴 자꾸 이레 데씩
저레 데씩, 그거 숲아기네 꿰어기네 잠 못자

A : 우린 그런거 안허여봐서. 전복만 전복 고동만 그디

B : 거긴 남발기 이시난. 안면도 강 전복무레

A : 전라도 섬섬이 안덩긴 섬이 었어. 발동기로 기냥. 가멍 산천이 보멍 숨비민 산천 가랑체
이민 바당에도 가랑챙이

Q : 비, 바당물속엔 안들어 가잖아

A : 바당이 소곱엔 안들어가주게. 우이서 달달달 맞고 허주. 경 경헌날은 물에 안가 안갑니께
게.

B : 육지에 무레 가민 가주, 무사 안가

A : 또 메역 허는디 강원도 가민 그냥 아척이 해뜨기 전에 무레 들어강 나. 경헌민 물로 바랑
에 노난 이젠 고무옷이라도 낫주, 물로바랑이라노난, 나민 그냥 막 손콧도 다 끊어가곡,
발콧도 다 끊어가곡, 몸이 다 그냥 불덩어리 닳아. 별경허연, 막 추워노난에. 경허멍 강원
도 물질 3년만 되민 애기 뽀따사비영 애기도 었넌 험니다마는

B : 조반날에 들어나사 그

A : 조반날에 들어나사 그걸 몰량 이제 이만씩 혼 발씩 험 각주메 각주로 부찌는 거난, 혼발
씩 부찌는 거난

B : 가멍이 너비 부찌는 거난

A : 여섯이 살민 댓되 되는 낭푼으로 이걸랑 우리 점심. 그 땀 먹을 것도 었언, 저 등대 7루
이제 보리 닭아난 등대 7루 씻젠 개도 췌도 안먹는 거. 그런 건 이제 아척 저녁 먹고 우
이 점시에랑 물질 허영 와그네 요거 먹게 허민, 혼 손가락씩 두 손가락씩 흐흐 허민 여섯
이 혼방에 사난 다 서년 성님에

Q : 바당에선 잡은 건 안 먹고?

A : 바당에서 잡은 건 풀아 풀아. 막 강원도 문젠 어린애기만 썩 허여. 어떤 건. 커. 경 해기
네, 그디 가기네 풀곡, 주웬에서 영 뭐 주민 장도 바파당 먹곡.

B : 시장도 강 보곡

A : 전복은 또 메역 굽애기 냥 요만씩 험거 돌 비다닥~이 붙어. 전복 그 메역 거시기 먹젠.
경허민 막 전복덜 해영 그디 장에 강 풀곡, 주웬에도 더러 주곡, 장 바파당 먹곡, 경허멍
살아수다.

Q : 불턱에 앉을 때는 순서가 잇우광?

A : 순서가 었어. 순서가 어신디 그냥 빈틈에 허영 앓으민

B : 불 틈더레 영 돌앙 앓으민 그자

A : 경허민 우리 이디서 메역 조문 땀 아기 뺨 사름은 똑 혼 통에 강 앓아. 이디도 보민

B : 오랜 안허도 경 똑 경 맞차저

A : 이디도 배 분 사름, 이디도 배 분 사름, 허허, 경허민 막 웃음니께 덜. 말 물도 혼 무레
혼 통에 메염젠 허멍덜 웃음니께.

Q : 몇개월까지 작업 했시고, 임신하면

A : 임신하면? 그자 날 때까지 햄수게

B : 날 때까지

A : 날 때까지 햄수게. 날 때까지

B : 날 때까지 허여. 수정이 었어

A : 나 이제 저 파상풍으로 일레만이 돌아나분 거. 그 때 이월로 초 이튼날. 날도 안 잊어벼어. 초 이튼날 메역 조물당 오라방 간 수자에 메역 조물단 해란게 물에 간 드난 허벽에 물 담아드는 거 ㄱ찌 그냥 괄괄괄괄 담아지곡, 물 알래 들어가질 못허여. 동동 떤. “아이고 무신거레 완디 무신거레 완디” 온 즘수덜은 막 기냥 “아이거 이거 큰 뱅신 된다 큰 뱅신 된다” 허멍 허여도 기냥 혼 쳡이 때난에 기냥 이제 스물 일곱에 이제 우리 그거 데껴돈에 큰년 나시난 기냥 뭐허연

Q : 임신 해신디 애기가 물질 허멍 죽어분 거?

A : 아니, 파상풍으로 파상풍으로. 옛날엔 그 배똥롱 잘못 똥르민 균 들어가기네 기냥 뭐헌덴 해나수다게. 경허연 하영 일러분사름이 하. 경허연 일레만이 그거 데껴돈에 물에 간 드난 허벽에 물 담아드는 거 ㄱ찌 설룬강에 무신 것허레 생굴이엔 헌디도 가짐광 이젠 영 뱅신되젠사 허연사 몸은 ‘가지만 말렌 아이고 무시거허렌 감디 큰뱅신 된다’ 어멍덜은 경해도 혼창에 뜨난 기냥 간거라. 혼창에 뜨난. 스물일곱에 무신 거시기가 이수가게. 음. 생각을 허민 무사 경한 해저신구 해저.

Q : 거문 김형자 **고희자(???)**님은 이거 몇년 허셔수과?

A : 이거 몇년 이제 첨 열네설에부떠 어멍 덩건 어멍 조름에 돌랑 덩기멍 물질 배완. 이거 육지 덩긴딘 열여덱에부떠 간에 이제도록 일생을 물에만 살안. 허.

B : 경해도 닌 안살아저.

A : 제주 베랑 안살아서.

Q : 칠십아홉(79)까지 작업 한 거?

A : 응?

Q : 일흔아홉(79)까지 하신 거?

A : 일흔일곱까지 해저신가? 삼년, 삼년 안되난 아홉까지 해저서.

Q : 농사 짓는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로?

A : 농사, 농산 죽장 기냥 썸 없이 키우멍, 죽장 기냥

B : 아이고, 췌 출

A : 목장 사멍

B : 췌 모쉬 혈 때는 그

A : 집 좃아오곡 물 먹으레 감도 “췌 물강 맥영 오라” 허민 췌 가는 양 만 가민 물 좃앙 간덴 한게. 꼭 경 현, 췌가 말 못 곱음뿐이주 집 좃앙 저 목장에라도 물 먹으레 가. 췌가

Q : 상군 해녀시잖아 예? 상군은 어떻 사람을 상군이렌 햄수과?

B : 짙은 바당에 강 허곡 물건 잘허는

A : 상군은 뭐 짙은 바당에 가근에 물건 잘 허곡, 숨 질곡.

B : 숨 진 사름이 상군

A : 상군, 중군, 하군. 하하. 바당에 가민 양 인역 덩겨난 고망을 다 알아저. 인역 덩겨난 여도 다 알아지곡

B : 저디 가민 고통이 있는가. 또 즘수덜 숨비어가민 그 저끄 가민 츳츳츳

A : 이제도 가민 이제도 생각나는 건 어린 때 해나고 뭐 해난, 어느 고망에 가민 무신거 있
저, 어느 고망에 가민 무신거 있저 생각이 나 집니다.

B : 000친 줌수덜은

A : 열 좃으렌? 열 골렌?

Q : 예

A : 큰여, 큰여 알

Q : 거기엔 뭐가 많이 나죠?

A : 큰여 알

B : 큰 여 아래 가민 고동도 많이 나고,

A : 많이 나고, 생굴도 가민 많이 나고, 너분여 깝 이제 그 뭐헌디도 가민 베꿏디 가민 많이
나고, 또 저 배놓는 여 이제 이 앞바당 배놓는 여 가민 많이 나고, 고동이 엇인디가 이수
꽂? 옛날 하르방덜~ 그 바당에서 풍채 만나민 이제 그 막 죽은 영혼덜 다

B : 영장 영장. 영장 올람서..

A : 막 이제 뭐허민 행원은 파도가 세어노난

B : 이지(??)가 이신고라 영장이 잘 올라

A : 그냥 열정(월정) 열정(월정) 이제 월정 바당에 이제 막 올르고 도 한동 바당에 곱에 올르
고 이제 열정(월정)에서도 안 치와주곡 한동서도 안 치와주난 행원 하르방덜이 다 치우멍
그 영혼을 그 하르방덜이 다 묻어서. 경허난 그 저 나라에서도 이제 저 바당을 이제 많이
행원 바당을 많이 준거라.

B : 월정도 경허영 바당 훈 구역

A : 계난 마당 이제 한동 굴미나 월동 굴미나 이제 집 지신디가 행원 바당이라. 저 집 지신디
가 다 행원 다 거시기라. 큰 건물덜 들어 앓인디. 갈 때랑 영 돌양 가 봅서. 뭐 볼만 허
우다.

Q2 : 월정린데 행원 쪽이에요?

A : 냐.

B : 아니 거 월정은 바당인디

A : 검은빌레로 검은빌레로 모살은 저 쪽이고 검은빌레롬 다 이쪽이라, 검은빌레는 다 이쪽에

Q2 : 모살쪽은 월정리고?

A : 냐. 모살쪽으론 월정리고, 검은빌레는 다 행원. 게 행원 아이덜은 다 출하(??)??지 집 이
성 살렌 허난 문딱 풀아동 가부난 이제 큰 건물덜 들어 앓안덜 이제 육지 사람덜 완 다
큰 건물 지라서. 모을 사름덜 다 오백(500)만원씩 주멍 다 집 지성 살렌 다 행 주난 풀멍
다 나가부난 이제 아니 쏜 사름 훈 사름가 두 사름가?

B : 아, 거기 그 바당 돌다 보면

A : 바당 다 이제 곱이 이수게 옛날 옛날 그 바당 이제 곱이

Q : 작업 하다가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물 위에 올라 왕 확인헉니까?

B : 물 위에 오면은 '이건 어느 바당이다' 허는 거를 인역이 짐작을 속으론 짐작을 허주게. 이
건 어느 바당

A : 더뵁이 물은 이제 비렛질이렌 헌딘 행원 줌수덜이 많이 참섭해났주. 경헌디 이제

Q : 여기 풍차 같은 거

A : 음, 저, 이제 행원 풍차가

B : 안개 질 때는 물 영 물 밀려가는 거 좃고

A : 풍차가 이제 열다섯개 들어와수다. 행원. 열다섯개
 B : 안개 진 날은 바당도 못 봐
 Q : 그 몫 작업은 여기는 몫은 없지 양?
 B : 몫은 나지 안해수다.
 A : 몫은 이제 안 나. 옛날엔 나나수다마는.
 B : 노랑쟁이도 나나신디...
 A : 굶디도, 굶디도 많이 납니다 막 그냥 돌 빌레가 좋아노난. 우민
 B : 연진 엇어나신디 이젠 양 연지 육지 바당아 나주 이런 ..
 A : 울산더레나 낮주 제준 경 엇어신디
 B : 엇어신디 메역이 이 지역에 안나는 후로 우미가 나는거야 우미 바당이야 다. 여에도.
 A : 여이고 짚은디고, 윙은디고 다 우미. 게난 허여나난 가고싶은디 이젠 안 덩겨가난 허구젠도 안혀.
 B : 가젠 출려 났단...
 A : 마중도 안해주켄 허난에, 예에~
 Q : 마중은 누가 해줄거라
 A : 하르방이
 B : 남 허민 돈 주고, 돈 줘사
 A : 무사 아방 안해나샤?
 B : 아예 게메 남 빌민 돈을 줘야
 A : 하르방 엇인 사름덜은 다 돈 주명 햄수게, 30만원씩
 Q : 여기서는 지 들이고 강 요왕에 비는 거 어디 강 햄수과?
 A : 이디 올리부떠는 저 것난 디 예 저 배 매여진디덜. 그 디서 혈걸로 헤연에 막 올리 해수게. 하루 저물양 해서. 이제 여기서 삼월(3월) 삼짓날 혈 걸로 허거 이제 삼월(3월) 삼짓날날 워신거 안해지건덜랑 왕 먹읍서.
 Q : 삼월 삼짓날 것난 디?
 A : 응, 것난 디
 Q : 거는 어촌계에서 허는 거지 예.
 A : 응, 어촌계에서 허는 거
 Q : 심방은 누게가 해서?
 A : 심방은 이제 누게 그, 순심인가?
 Q : 순심이 심방이 허연?
 A : 응, 순심이 심방, 저 이제 연옥이 시아방 연옥이 시아방 거시기 받아수게. 당 메어수게
 Q : 바당에서?
 A : 응. 순심이가 이제 막 뭐 잡아냄수게
 A : 우미혈 땀 막 하나수게마는 이젠 우미 할망덜 아니허고 해부난
 B : 할망덜도 안허고 우리질도 안해노난 양
 A : 우리 또래도 안허고, 우리또래 다 뱅
 Q : **치성(??)**허난 얼마씩 받암수과? 한 30만원?
 B : 몰라. 돈 나웁젠 허는 우린 몰라.
 A : 우린 그런거 몰라

Q : 몰라?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안허여?
 B : 안 줘
 Q : 어디로?
 B : 해녀, 해녀덜 허는 사름만
 A : 허는 사름만, 해녀질 허는 사름만
 B : 백(100)만원 주민 백만원 나오는 거 해녀덜 그 허는 사름만 해녀덜. 물질 고동 잡는 사름만
 A : 수협에서 허는 건 거 물질 허는 사름만 줘주. 우리 물질 설른 사름은 안줍서.
 Q : 퇴직. 아, 물질 작업 허는 사람이 안했을 때에, 어촌계에 속했으면은 뭘
 B : 헐거. 이제도 허구젠은 허는디
 A : 우리 동갑에서 하나 햄서, 둘이 햄서, 둘이. 그다음은 다 노인당에 가고. 시설에
 Q : 물질 하는 사람이 작업을 안했을 때에 돈 주는거?
 A : 작업 허난 돈 받암주
 B : 줘실거라. 가네 받암실거라.
 A : 받암주게
 Q : 작업을 안했을 때에 주는 거 아니?
 A : 아니. 작업 허여부난 작업허는 사름에서 나오는 거
 B : 백(100)만원 벌민 백만원 버는 그 한에서
 Q : 아아, 어촌계에서?
 A : 응
 B : 경허고 굴았주. 조케고라. “야 우리 물질 안허는 사름도 줘사주 우리 물질 헐 때가 언제고?” 경허난 “그러게 말이우다. 경허는걸 어떻 말이우파?” 허난 뭘엔 굴아
 A : 수협에서가 건 뭘해사주.
 Q : 경허고 오늘 또 굴을 말 잇우광?, 해녀 노래도 불러주고~
 A : 해녀노래 거 요자기 서울에서 완 불르렌 허난 기냥 삼절꺄지 네번을 불러노난 이, 아이고, 지치고 기냥,
 B : 나한티신디 불르렌 허주게.
 Q2 : 궁금한게 예. 물속에 들어가민 숨이 한계가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제일먼저 잡는. 전복, 해삼, 구쟁기, 막 여기에 있다. 제일 먼저 잡아야 할게 뭐예요?
 B : 아, 전복 보민 전복을 잡아야지
 A : 전복을 먼저 허야지.
 Q2 : 그 다음에 뭐죠?
 A : 계난 양, 전복 바그에 양, 올라 왕 또 들어강 허젠 허민 양, 물빨 세영 좃지 못허곡 허민 그걸 보아그네 기냥 바로 강 터, 숨은 다 되어가곡, 터젠 허민 감수게 덜.
 B : 숨 바뻐
 A : 숨 바뻐
 Q : 본 조갱이 놓곡
 A : 문겐 봐지민 허곡
 B : 봐지민 허곡, 그거 그냥 아무나 보는 거 아니. 눈썹 불러야.
 A : 것도 머정이 잇엉
 B : 머정이 잇어사 재수가 좋아야.

A : 재수가 좋아야. 허허

B : 그런것도 아무나 붙질 안허서

Q : 머정이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B : 전복 트고, 구제기 잡고

A : 문에 잡고

B : 자파. 자파덜 저 해섬 잡고, 문어 잡고, 그리고 많이 잡는 것이, 많이 잡는 상군. 곳 상군.
 곳 상군은 이디 연옥이

Q : 막 빨리 도망 가불지, 그거 먼저 잡아야 되잖아 예. 도망갈까봐

A : 도망가는 건 문게백이 었어.

Q : 전복도 도망간덴 마씸.

A : 아니, 전복은 경. 영 보양 팔팔팔팔 노는 전복도 이십니다. 노는 전복도 있주마는

B : 전복은 대략 딱 붙어

A : 딱 붙어 이십니께.

B : 빗창 아니 헐 때, 빗창 들어가기네

A : 경허민 물빨이 세민 기냥 가늌 못 허영 일러부는 사름이 하. 물 가는양 고래도 물 소곱으
 로도 물 가는 양 가곡, 또 들물엔 또 들물 받아기네 서쪽더레 오곡

Q2 : 바당에서도 동서남북

B : 응 알아저.

A : 다 알아. 다 알아. 쌀 물엔 동이 바당. 쌀 물엔 서이 바당. 허허허허

Q2 : 동서남북 아네요.

A : 응, 잘 알아. 여긴 해녀가 많고 육진 해녀가 었어부난 우린 육지로만 그냥 살아수다.

Q : 육지 가면 헐 몇번 들어가면 바당 어느 정도 익숙해 집니까?

A : 그냥 이 제주 바당 7찌 막 윽아. 육지도..다 여살.

B : 바꿨던 나가지 안했주게. 곳바위덜만

A : 천초무레 곁은거. 이제 저 무신거 허민 이제

B : 곳바위라노난. 바꿨디 막 나가지 안허여도 곳바위라노난

A : 경허고 그 이제 그 섬섬이라노난 물 경 배랑 가질 안허여. 목 었덴 허민 허주마는 그냥.

B : 물빨 센딘 목에것도 잘도 가.

Q : 거민 육지 물질은 어디어디 다녀오신 거?

A : 난 이제 울산은, 아니 간디가 었어. 강원도 간 헐 삼년 갔다리왔다리 허멍 살고, 또 울산
 또 갔다리왔다리 허멍 울산 이모 할망 그디 할망 아시 살아부난. 열여덱에 간에 저 다 팔
 월나난 문딱 제주도 해녀덜 다 들어오는다 할망 “삼춘 애기나는 거 저 뭐해동 심부름 해
 동 가라” 해부난 팔월에 이제 그 아이가 스무흐를날 나서. 게난 다 해녀덜 와분디, 처용
 으로 간. 그 즈수도 죽어불고. 아이고 이거, 막 오고 싶은, 제준 오고 싶고, 할망은 삼
 춘 애기 나는거 심부름 해동 가렌 허난, 육지 풍습으로 삼칠은 이십일, 스무흐루를 금협
 디다게. 경허난 이제 구월 뗏일날사 제주더레 와서. 경허난 아이고 이거 육지 가지, 어멍
 신디 ‘나 다시 육지 안가쿠다’ 허연 이젠. 열여덱 열아홉엔 안가서. 경헐 이젠 스무솔 나
 는 해 부턴 아주망네영 막 동네 그 언니네영 이제 간에 강원도로 열로 이제 메역 조물앙
 제주미역 안 조물아지민 제주 왕 메역 조물고, 이제 또 부산 가기네 남바르 배 탕 이제
 뭐 허멍. 겨울에 이디 살아보지 안허수다. 부산물질 죽 허멍 그냥 자갈치 시장으로, 범일
 동 시장으로, 국제시장으로 그자, 인역냥으로 잡앙 인역냥으로 풀앙 아홉시, 어떤 땐 밤

여덟시 아홉시까지 허민, 다 못 풀민, 메역 끝은거 이제 문아홉게 성님네 뭐 허민 식당에 가다기네 저 념기라 허민, 이제 오명오명 식당에 념겨독으네 그냥 왕, 집이 왕 밥해 먹젠 허민 아홉시 열시 되어. 경허명 다다미 방에 부산서 다다미 방에 살명, 아방은 그냥 해군 으로 지원행 가부난 부산 강 지네가 뿌드주게. 경허민 휴간, 자꾸 훈 열세번이나 부산살 아부난 와도 그 당시엔 이제 애기 없는 주사사 놔부난 산디 애기도 살만이 살아도 엇어. 경허연 스물 일곱난 이제 아방도 제대 한 오고 이제 뭐허연 살젠 허난

Q : 돈 벌영 오면 돈은 어디 담양 읍니까?

A : 돈? 그냥, 그냥 담양오주. 허허. 보게뜨에. 그냥 이월에 야이영, 나영 간디 그냥 일어난 보난 눈이 희영 문연.

B : 삼월에

A : 삼월에가? 이월이라니까

B : 아니, 삼월이주게. 삼월이난 눈 삼월에도 눈 와서.

A : 에에, 이월이 아니가, 이월덜에. 이월덜에 가린지게 조문덴 헌게 틀림엇이 이 눈 았구넨 한 그 강원도 그 강원도

B : 나영

A : 응 니영 갈 때. 그 이월이 아니가. 누원 자단 깨난 보난, 붉음은 허고 그냥, 눈은 해영허 게 묻고, “아이고~ 이 눈 묻은 거 보라. 이월에 가린지게 조문덴 헌게 이거 갈라진 지게 조물영. 허허”

Q : 값 싼 조개?

A : 그 갈라진 지게 지게가 영 노민 갈라지지 안헙니까? 경허민 그 지게 저물도록 눈이 이제 문넨 허는 거라. 이 이 이월덜에

B : 지게 이렇게 부리면은 갈라지지 안허여. 경허난 그 갈라진 지게

A : 지영 데니는 지영 데니는 지게. 조문덴. 옛날 할망덜이. 이월덜에 갈라진 지게 조문덴 헌 게 틀림엇이 이거

B : 스무살에 나 갈적에 흑산 가니까 뭐 한

A : 테왁은 그냥 굴라얏은 테왁은 좇지 못허고

B : 그 땐 그 두번째가 세번째 갈 때. 시집 안 갈 때우다게.

A : 계난게 좇지 못허연?

B : 좇지 못허영 그냥 내붓주.

A : 쫓쫓. 아이그.

B : 내볼구

Q : 테왁 엇이민 어떻 헙니까?

A : 테왁 엇이민

B : 그디서 장만 해주난 했주.

A : 배가 거기강 세와지난 난겨주.

B : 배가 이시난. 아 그 때? 짜 애 썬

A : 난 그 부산 감래서 그냥 죽을뻔 해서. 완전. 그 덩장 닭은 그 고기 들어가는 디, 영 고리 닭은 그 거시기 놓잡아. 그냥 물 날은 어둡고 이~, 그냥 메역 조물안 허는게 그냥 그 소 굽에 들어가져서. 그냥 나오젠 허난 대가리 그물에 걸린거 아니?. 그냥 뒷걸음 행 나오는 게 그냥 숨은 다 먹어볼고 나 그냥 물 베끗디 나완 보난 그냥 테왁도 어디 가볼고 그냥 뭐허연 막 첨 재우재우 한 그 때 허연 살아나명 했져. 죽을머루 그 때 허연 나 저 법당에

가명 그 인십으로. 고생 문착허멍 이제도록 살아수다. 허허. 팔십도 나도록. 허허. 경헌디
밭일을 안허젠 해도 다 눈 앞이 밟이고 해 노난 안허지도 못허크라.

B : 예. 이제 안해도 살 걸

A : 허리만 아프주. 앓엉 허는 얼마든지. 누웠 잘 때도 불편 안허곡, 걸을 때만 그자 영 호끔
등굽곡. 이디이디 아파기네 그냥

B : 난 옆구리 다쳐노난 옆구리 돌아눕지도 못허곡

A : 오늘도 막 노인당에 간에 막 그냥 뭐 허당 와서.